

‘미 전자학회 석학회원’ 유회준 교수, ‘세계 최상위 0.1% 회원’ 최고 영예

카리스트(총장 서남표) 전자전산학과 유회준(47·사진) 교수가 미국 전기전자학회(IEEE) 최고 영예인 석학회원(Fellow)에 선임됐다.

유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호텔에서 4일 오전(현지시각) 개막된 2008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 시상식에서 ‘저전력 초고속 초고집적회로 설계 분야’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전기전자학회 석학회원에 선임돼 증서를 받았다.



>> 유회준 교수

미국 전기전자학회는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최대 학회로 매년 회원 가운데 연구 업적이 뛰어난 최상위 0.1% 이내 회원을 석학회원에 선임하고 있다.